



## 고령 미혼 가구주 증가 추이

김미화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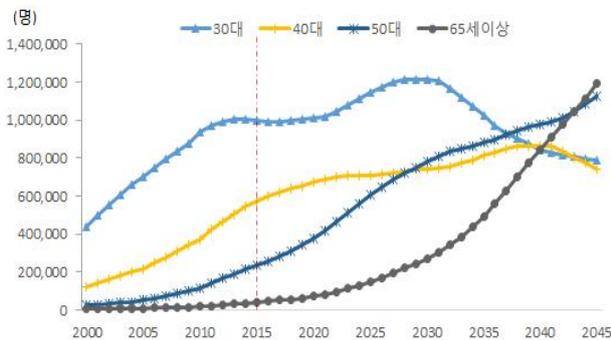
만혼 및 비혼의 증가로 미혼 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 미혼 가구주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2015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30~40대 가구주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2018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며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45년에는 65세 이상 남성 미혼 가구주의 수가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고령 미혼 가구주는 유배우자 가구주 및 2인 이상 가구주에 비해 빈곤, 간병 및 사회적 고립위험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하고 미혼 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 미혼 가구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sup>1)</sup>

- 만혼 및 비혼의 증가로 향후 미혼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은 유배우(63.8%), 미혼(16.0%), 사별(11.2%), 이혼(9.0%) 순이지만, 2045년에는 유배우 가구주의 비중이 49.2%로 감소하고 미혼 가구주가 2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30~40대 가구주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2018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며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그림 1〉 참조)
  -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2015년 약 4만 4천 명에서 2045년 119만 2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30대(32.8%), 40대(18.9%), 50대(7.8%), 65세 이상(1.4%)이나 2045년에는 65세 이상(21.4%), 50대(20.3%), 30대(14.2%), 40대(13.3%)로 고령 미혼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그림 2〉 참조)

1)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그림 1〉 연령별 미혼 가구주 수 추이



자료: 통계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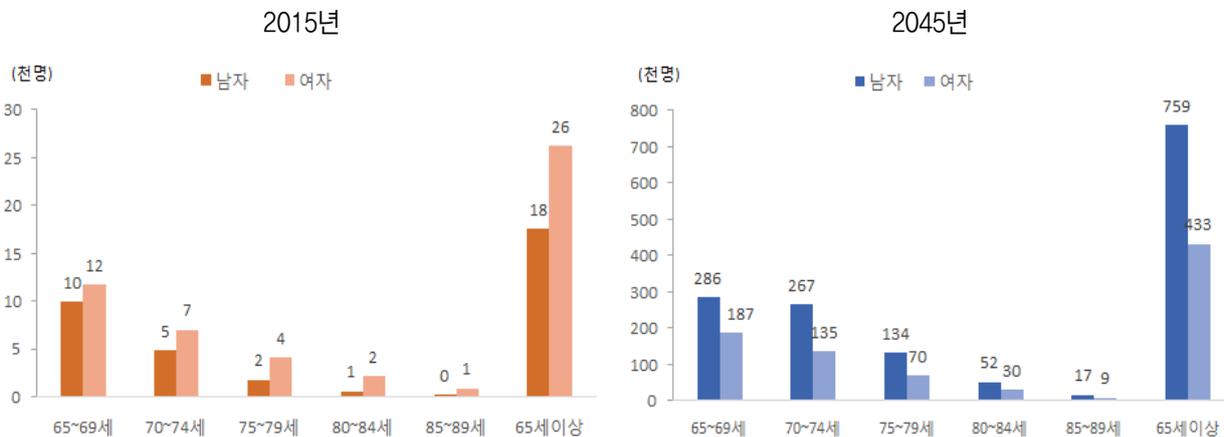
〈그림 2〉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자료: 통계청(2017)

- 65세 이상 남·여 미혼 가구주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미혼 가구주가 여성에 비해 빠른 폭으로 증가하여 2045년에는 남성 가구주의 수가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높게 나타남(〈그림 3〉 참조)
- 65세 이상 남성 미혼 가구주는 2015년 1만 8천 명에서 2045년 75만 9천 명으로 40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여성 2만 6천 명에서 43만 3천 명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65세 이상 남·여 미혼 가구주 수 비교(2015년 vs 2045년)



자료: 통계청(2017)

- 고령 미혼 가구주는 유배우자 가구주 및 2인 이상 가구주에 비해 빈곤, 간병 및 사회적 고립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sup>2)</sup>

2) 반정호(2014),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미혼 독신가구는 실업 상태에 빠질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6년 1인 가구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36.5%에 달하며,<sup>3)</sup>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45.3%<sup>4)</sup>로 전체 빈곤율 12.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고령 미혼 독신가구의 경우 이혼 및 사별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간병을 담당해야 할 경우 일을 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타인과의 교류도 낮아져 개인의 사회적 고립화의 위험이 높음<sup>5)</sup>
  - 특히 1인 가구 중고령자(50~60대)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급증하는 남성 미혼 가구주의 우울 수준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sup>6)</sup> **kiri**

3) 동거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는 3.0%, 가구주는 상용근로자, 배우자는 임시·일용근로자인 비중은 12.8%임

4)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5) 이명진 외(2014), 「1인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6) 강은나 외(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원